

롯데호텔, 드라이브 스루에 비건 메뉴 도입

롯데호텔 서울과 월드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에 비건(채식주의) 메뉴를 추가하고 친환경 용기를 도입했다. 비건 도시락 '베지 박스'는 콩으로 만든 미니버거 등 채식메뉴 중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유와 달걀, 생선은 허용하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을 위한 치즈 소스 생선구이도 있다. 포장 용기도 사탕수수 섬유질로 만든 친환경 펄프 박스를 도입했다.



KT·LG vs SKT·카카오...인공지능 혈맹 경쟁 본격화

“스마트미러로 지니뮤직 듣는다”

〈LG생큐〉

〈KT기가지니〉

‘AI원팀’ 양사 AI 플랫폼 연동 검증 다양한 LG전자 제품에 적용 예정 SKT·카카오, AI분야 협업 가속도

“하이 엘지”를 부르고 명령하면 KT 기가지니가 뉴스를 읽어준다.

정보기술(IT)기업 간 인공지능(AI)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KT와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AI원팀’과 지분교환 혈맹을 맺은 SK텔레콤, 카카오 간 경쟁이 본격화했다. AI원팀은 사업화 부문에서 첫 협력 결과물을 선보였고, SK텔레콤과 카카오는 협력의 중심축을 AI로 잡았다.

●기가지니-생큐 연동 검증

AI원팀은 사업화에 첫 발을 뒀다. KT와 LG전자가 각 사 AI플랫폼을 연동한다. 최근 경기도 판교 LG 생큐 홈 실증단지에서 양사의 플랫폼인 기가지니와 생큐를 연동하는 검증을 했다. LG전자가 AI원팀에 합류한 뒤 나온 두 회사 간 첫 협력 성과다.

검증에는 LG전자의 ‘스마트미러’를



‘AI원팀’인 KT와 LG전자는 최근 경기도 판교 LG 생큐 홈에서 양사의 플랫폼인 기가지니와 생큐를 연동하는 검증을 진행했다. LG전자가 KT 기가지니 AI 기술이 적용된 LG전자 스마트미러를 조작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활용했다. 스마트미러는 가전제품 제어, 날씨 안내, 길찾기, 일정 관리를 비롯해 주먹 내 에너지 생산, 사용, 저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기가지니가 제공하는 뉴스, 지식검색, 지니뮤직 등의 서비스를 스마트미러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이 엘지,

뉴스 들려줘”라고 말하면 스마트미러가 “기가지니에서 뉴스를 들려드려요”라고 답한 뒤 뉴스를 읽어주는 식이다. 양사는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사업화에 나선 예정이다. 또 스마트미러뿐 아니라 LG전자의 다양한 제품에서 AI플랫폼이 연동되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부장(부사장)은 “이번 협업은 AI원팀의 사업 협력으로 나온 첫 결과물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력 모델을 다양한 참여기관 및 분야로 확대해 시너지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AI원팀에는 KT와 LG전자 외에도 LG유플러스, 현대중공업그룹, 카이스트, 한양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투자증권, 동원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SKT·카카오는 AI기술 공동개발 착수

지난 2019년 30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며 혈맹을 맺은 SK텔레콤과 카카오도 AI 분야 협력이 속도를 낸다. 양사는 최근 AI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력은 인프라, 데이터, 언어모델 등 전 영역에서 이뤄지며 올해

부터 집중적으로 투자 및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텍스트, 음성, 이미지 형태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공유하기로 했다. 양사는 공동 개발한 AI 기술을 상호 활용할 방침이다. 두 회사는 AI, 플랫폼, 미디어 등 미래사업 분야 공동 지식재산권 풀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SK텔레콤과 카카오, 삼성전자가 함께 하는 ‘AI R&D 협의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3사는 상반기 중 첫 협력 결과인 ‘팬데믹 극복 AI’를 공개할 예정이다.

양사의 AI 협력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분 교환 뒤 나온 사실상 첫 구체적 협력방안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지분교환 후 각 사 대표 임원이 참석하는 ‘시너지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까지 뚜렷한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는 업계의 대체적 평가다. 오히려 미디어나 커머스, 모빌리티 등 협력보다는 경쟁하는 분야가 더 많았다.

이번 AI협력이 다른 분야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최근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K브로드밴드와 콘텐츠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생명 다루는 ‘임신 중절수술’ 신중해야

임신중절수술은 2020년까지 법적으로 처벌받는 불법 수술이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임신중절수술(낙태)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

임신 14주 이내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간 임신 등의 경우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산부인과학회는 무분별한 낙태와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임신한 여성의 아무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의사가 낙태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임신중절수술은 절대 간단한 수술이 아니다. 다양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 우려되는 합병증으로는 자궁내막염과 골반염으로 출혈이나 생리과다, 질 분비물 증가 등이 있다. 과도한 염증으로 복막염과 패혈증도 나타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후유증은 정작 임신을 원할 때 자연 임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궁 내막의 손상에 의한 유착도 흔한 난임의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수술을 받은 많은 이들이 수술 후 계속 있는 하혈을 생리로 착각한다. 중절 수술 이후 자궁 출혈로 당황할 수 있다. 아직 충분히 자궁 내막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이다. 병원을 꾸준히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성관계와 목욕은 3주 정도 피해야 한다.

임신중절수술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수술 중의 하나다. 따라서 역으로 피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검진과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피임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임신중절수술은 여성의 몸에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술 경험이 많고 숙련된 전문의에게 수술 받을 것을 권하고,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생각을 해서 수술 결정을 해야 한다. 강남 서초 리한산부인과 김윤희 원장



현대오일뱅크, 에어프로덕츠와 수소 사업 박차

현대오일뱅크가 글로벌 수소 기업 에어프로덕츠와 손잡고 수소사업 확대에 나선다. 현대오일뱅크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에서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와 김교영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어프로덕츠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수소 생산 업체다. 천연가스, 정유 부산물 등 다양한 원료로 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은 물론 수소 저장, 수송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블루수소, 화이트 바이오, 친환경 화학 및 소재 사업을 3대 친환경 미래 사업으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블루수소 10만 톤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금감원, 옵티머스 100% 배상 결정...NH證 수용은 물음표

조정안 수락 시 3000억 반환해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 분조위는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 체결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NH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동

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NH투자증권이 막판까지 계약취소가 아니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 구조를 주장한 만큼 조정 성립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donga.com

365 결제서비스 #무선단말기

카드결제 1분 후 바로 입금

- * 건당 최대 300만원 결제가능
- * 원하는 계좌로 정산입금
- * 최대 6개월 할부가능

1. 비 사업자 (노점상, 영업딜러, 프리랜서... 등)
2. 신용불량, 연체, 체납 등... 누구나 가능

P.G (Payment Gateway)사란?

신용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한 뒤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말한다.

- 매일경제 시사용어사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

1년 365일 카드결제 후 1분 바로 입금



365 결제서비스 #무선단말기

카드결제 1분 후 바로 입금

- * 건당 최대 300만원 결제가능
- * 원하는 계좌로 정산입금
- * 최대 6개월 할부가능

1. 비 사업자 (노점상, 영업딜러, 프리랜서... 등)
2. 신용불량, 연체, 체납 등... 누구나 가능

카드결제 후 1분 바로 입금

★ 대리점 모집 ★

가맹점 모집 1건 수당 12만원

모집 가맹점 월 결제금액의 2% 수수료지급 (폐업할때까지 지급)